

# ‘은행성역’ 외환업무 증권사 허용... ‘PG+환전’땀 시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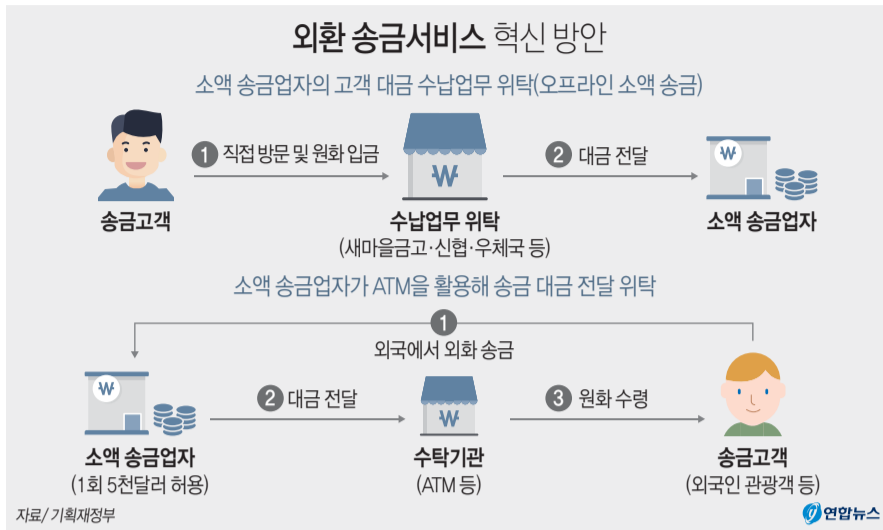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반색  
외국인투자자 이중수수료 막아  
“해외송금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증권사의 외환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디지털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증권사의 업무 영역은 넓어지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전 과정 단축(축소)에 따른 수수료 혜택 등이 예상된다. 다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점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획재정부의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증권사의 외환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사업 영역 확장이 가능해져서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계는 향후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해외송금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재부의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거래 부문에서도 환전을 허용



한 건 다양한 가능성을 남겼다. 지난해 2018년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겸영을 허용할 수 있게 했는데 해당 PG업과 환전업무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해외 관광객이 국내 증권사 PG를 통해 국내에서 결제하는 경우 고객 결제자금은 은행을 통해서만 환전이 가능했다. PG업자 수수료와 은행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

다. 이제 증권사도 환전업무를 할 수 있어서 이중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사가 PG서비스에 필요한 외화는 은행을 통해 환전을 해야 했고, 환전은 은행에서 결제는 증권사에서 하는 구조여서 수수료가 두 번 부과됐다”면서 “이제 증권사가 환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 결제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한 번으로 줄어들어 수

수료가 저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다날 등 국내 PG사들은 전자결제 시장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고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을 증권사가 잘 활용하면 증권업계의 추가 재평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올해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증권사 고객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전에 드는 비용부담이 줄어들면서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어서다.

우선 외환기반 상품 출시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모든 금융상품은 원화기준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도 어려웠고, 해외 상품을 소개할 때도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 상품에 투자하려면 따로 은행에서 환전을 하고 증권사로 돈을 입금해야 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채외동포나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 상품을 편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게 됐고, 해당 시장 선점을 위한 증권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환 업무에 대한 증권사의 역할은 점점 커질 것”이

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아직은 여러 제약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외환기반 상품 출시를 통해서 국내 투자자의 투자 저변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환업무 범위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일시적으로 증권사의 환전 수수료 부담을 줄어줄겠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수수료를 감당하면서 서비스를 해온 부분이 있지만 이걸 리스크 관리 비용으로 볼 수도 있었다”면서 “외환업무가 가능해졌다고 마음껏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던 증권사는 향후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국내 투자자를 위한 ‘혁신’을 기대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것. 기재부는 시행령이나 규정을 개정해야 하면 후속조치 등을 9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손승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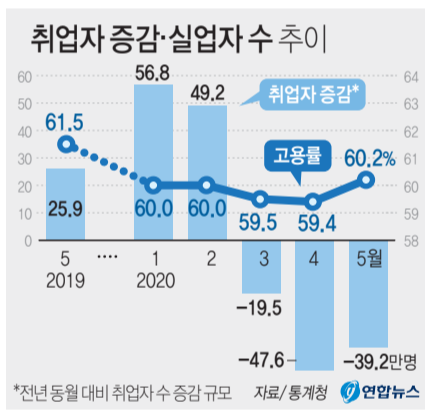
## 취업자 39.2만명 ↓... 3개월 연속 감소

통계청 ‘2020년 5월 고용동향’

지난 5월 취업자 수가 39만2000명 감소해 3개월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너스 고용 기간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이번이 가장 길다.

10일 통계청의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지난 3월(-19만5000명)과 4월(-47만6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8만9000



명), 숙박·음식점업(-18만3000명), 협회·단체,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8만6000명), 교육서비스업(-7만명), 제조업(-5만7000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1000명), 농림어업(5만4000명), 운수·창고업(5만명)은 증가했다. /한홍수 기자 hys@

## ‘韓 실리콘밸리’ 스타트업파크 2곳 조성

중기벤처부, 오늘부터 공모

정부가 ‘한국판 실리콘밸리’ 역할을 하게 될 스타트업파크 2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창업 거점인 스타트업파크 2곳 추가 선정을 위한 공모를 11일부터 7월31일까지 진행한다

앞서 중기부는 인천 송도 투모로우 시티 일대를 스타트업파크 1호로 지정한 바 있다.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Station-F와 같이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공간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1곳은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로, 또다른 1곳은 복합형 스타트업파크로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는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대학·연구기관 등 우수 창업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에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하여 초기에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유형이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는 낙후된 도심기능을 창업·벤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정 지역에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고 복합허브센터 등을 추가로 구축해 기업지원 인프라와 생활형 사회간접시설(SOC)을 원스톱으로 조성하는 유형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광역자치체로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유통업체 ‘동행세일’... 中소 숨통 트이나

26일부터 대규모 할인행사 참여  
소비심리 자극... 내수활성화 기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오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할인 행사를 통한 매출 증대를 통해 납품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소비자 후생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역눌려 있던 소비심리를 자극해 내수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동행세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의 관측비용 부담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관심을 모았다.

공정위는 지난 4일 ‘판매 촉진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

체가 올해 할인 행사를 열 때 그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점 브랜드들이 세일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고, 할인율도 스스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관측비 부담을 덜게 된 유통업체들은 각자 별 상황과 업태를 반영한 상생안을 내놨다. 우선 백화점 업계는 우선 중소납품업체와 식음료 입점업체에 대해 행사기간 동안 최저보장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판매수수료도 인하한다.

납품업체가 상품 할인율을 10%로 정하면 판매수수료를 1%p 인하하는 식이다. 만약 30%를 할인율로 정하면 3%p 수수료가 내려간다. 판매수수료가 인하돼 마진율이 올라가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할인 혜택도 덩달아 풍성해질 가능성이 크다.

롯데백화점은 앞서 큰 호응을 받았던 ‘상생나눔박람회’를 동행세일 기간에 열 계획이다. 앞서 진행한 박람회에서는 판매 마진을 최대 50% 낮춰 진행했다. 할인 폭도 최대 80%까지 늘린 상품을 대거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판매대금도 조기에 지급한다. 현대백화점은 긴급자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해 1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존 무이자 대출은 2년 연장한다. 저금리대출로도 180억 원 예산을 사용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저금리대출 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갤러리아백화점은 저금리 대출 210억 원과 협력업체 관측사원의 중식비를 연간 25억 원 제공한다. AK플라자 역시 각 점포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상품대금 약 50억 원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처음으로 동행세일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최대 5%p 낮추고 최저보장 수수료를 면제한다. 상품대금 지급일도 현행 40일 안에서 최소 10일 이내까지 대폭 단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시장 점유율 비등비등... M&A 2차전 예고

>> 1번 ‘CMB도 매물로...’서 계속

◆통신사 쟁점 ‘복잡’... 판 커지는 유료방송 M&A

M&A가 연이어 시장에 매물로 나온 가운데 이동통신3사의 쟁점도 복잡해지고 있다. 매물로 나온 세 곳 중 한 곳만 꼽어도 유료방송 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유료방송 M&A 제 2차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와 KT스

카라이프가 31.52%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도 24.91%로 추격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24.17%로 격차를 좁히고 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한 곳만 꼽어도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료방송 시장 3위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순위를 뒤집기 위해 추가 SO 인수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의 경우는 1위를

차지하기 위해, KT는 점차 경쟁사들이 격차를 좁혀오는 1위를 수성하기 위해 다급한 상황이다.

KT의 경우 매물로 나온 CMB, 현대HCN, 딜라이브 중 한 곳만 차지해도 1위를 수성하게 된다. 실제 최근 현대HCN의 예비 입찰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가 모두 참여해 눈길을 끈 바 있다. 현대HCN은 서울 강남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이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도 타 업체 비해 높은 ‘알짜’ 업체로 평가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